

1 개요

동복본향당본풀이는 구좌읍 동복리 본향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마을이 이루어진 뒤에 상여화단에 따라온 상여하르바님과 상여할마님을 당신으로 모셔서 매해 네 차례씩 궂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함께 좌정한 부부가 할마님이 돼지고기 국물을 먹는 바람에 부부가 별거하게 되는 일이 있어 당을 따로 하여 모시다가 뒤에 함께 모시고 젊은이들의 액막이를 위하여 시왕맞이를 하기 시작하였다.

2 내용

옛날 동복리 지경에는 마을이 없었다. 어느 해 이웃 마을 김녕리에 사는 박씨가 농사를 짓다가 거름용 해초를 구하기 위하여 동복 바닷가에 듬북을 채취하러 왔다. 박씨는 해초를 걷다가 목이 말랐다. 한쪽을 보니 샘이 있어 갈증을 해갈할 수 있었다. 물맛이 좋아 그곳으로 이주하여 살았다. 그 뒤로 사람이 늘어 마을이 이루어졌다.

어느 해 비바람이 일어 생업이 어려웠다. 원인을 찾아보니 바닷가에 상여화단이 떼밀려 와 있었다. 사람들은 상여화단을 마을 안의 거리로 옮겨 놓았다. 정월 초사흘날, 초이렛날마다 상여에 제사를 지냈다. 한동안 마을이 평안하였다. 한 두 해가 지나고 사람들이 상여에 소홀해지자 풍파가 일었다. 그리 하여 정월 초이례, 삼월 열이례, 칠월 초이례, 구월 열이례 등 한 해 네 차례 궂을 하여 모시기 시작하였다.

상여를 따라온 신은 상여하르바님, 상여할마님이었다. 이들은 함께 좌정하여 마을 사람들의 제향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상여할마님은 돼지고기 국물을 얻어먹었다. 상여하르바님은 상여할마님이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며 살림을 가르고 말았다. 하르바님은 마을 거리 안에서 제향을 받고 할마님은 바람 아래 굴뚝밭으로 옮겨 좌정하였다. 그리고 할마님은 해녀와 어부를 보호하는 일을 맡았다.

뒤에 사정이 있어 당을 옮겼다. 홍씨 심방이 마을의 운수를 보았더니 젊은이의 운수가 좋지 않아 시왕맞이를 하여 액막이를 하기 시작하였다. 나중에 할마님을 함께 모시기로 하였다.

③ 특징

상여화단에 따른 상여하르바님, 상여할마님을 모신다고 한 것은 특별하나, 부부가 돼지고기 금기를 이유로 살림을 가른다고 한 내용은 당신본풀이의 보편적인 전승을 따른 것 이어서 전혀 특별하지 않다.

그러나 이는 이본인 박인주가 구연한 동복본향당본풀이와 다른 양상이어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④ 핵심어

김녕리, 해초, 듬북, 이주, 비바람, 상여화단, 상여하르바님, 상여할마님, 돼지고기, 굴묵
밭, 시왕맞이, 액막이, 동복리

⑤ 원전 서지사항

동복본향당본풀이(강정식, 『동복리 본향당굿』, 문화체육관광부·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11)

⑥ 관련 자료

동복본향당본풀이(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